

“이건희미술관 동서화합 상징지역에 세워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영호남 9개 시장·군수 공동성명

영·호남 9개 시장·군수들의 모임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이건희 미술관의 남해안남중권 지역 유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은 2일 경남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건희 미술관 남해안남중권 유지와 수도권 건립 반대'를 호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남해안을 집중 발전

시켜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2011년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등 전남 5개 시군과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 4개 시·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됐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최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의 수도권 설치 시사 발언 이후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유적경쟁 과열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다. 윤상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장은 “대한민

국은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과 거리가 아주 먼 남해안남중권 지역은 낙후돼 문화적으로 지역민들은 소외돼 있다”며 “지방의 문화 황폐화를 방지하는 것은 지방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므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남해안남중권 지역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많은 국민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도시가 적지 않다”며 “남해안남중권 관광벨트 지역에 틀어쥔 경우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발전,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이건희 회장의 철학, 삼성의 도전 정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합치되는 남해안 남중권 지역이 '이건희 미술관'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여수에서는 지난 달 10일 여수의 문화예술인, 정치인,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115개 단체가 대거 참여한 '이건희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가 출범한 후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남 공기질 개선 특목

전남도가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대응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처음 도입했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3 $\mu\text{g}/\text{m}^3$ 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평균(22.7 $\mu\text{g}/\text{m}^3$)보다 19% 개선됐다. 또 미세먼지 '좋은일수'는 56일로 14일 늘고, '나쁨일수'는 6일로 11일 줄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3년 평균 7일이었으나, 이번에는 황사 영향을 받은 3월 29일 하루밖에 없었다. PM2.5 초미세먼지 '좋은'은 15 $\mu\text{g}/\text{m}^3$ 이하, '나쁨'은 36 $\mu\text{g}/\text{m}^3$ 이상, '고농도'는 51 $\mu\text{g}/\text{m}^3$ 이상 일 때 발령된다. 전남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기상 조건, 국외 영향 등이 모두 불리했지만, 부문별 계절관리제 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와 좋은일수 및 나쁨일수는 개선됐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단속시스템 구축,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배출가스 특별단속 1만5362대 등을 추진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이 기간 석탄발전소 2개소 상한 제약(발전기 용량 대비 80% 상한으로 제한) 운영 및 대형사업장 20개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2463t, 질소산화물 2156t을 저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추진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행정 모범사례 전국 확산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국산김치사용표시위원회(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추진한 '국산김치 사용 인증제 표시제'가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주목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관련 회의에서 전남의 민·관 협업 모델이 우수 사례로 채택되면서 경북, 충북에 이어 울산, 충남, 부산 등 광역시·도로 확대됐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제 표시제'는 당초 국산김치사용표시위원회가 단독으로 추진했다.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영상과 식중독균 검출 파동으로 소비자의 안전식품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 김치산업 재도약 발판으로 삼기 위해 지난 4월 전남도와 국산김치사용표시위가 업무협약을 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홍보와 신청·접수를 하고, 국산김치사용표시위가 심사·심의, 지정서 교부, 사후관리를 한다. 시·군과 도교육청,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 등도 협력한다.

전남도는 오는 9월까지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지정을 5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전남지역 일반 식당 중 자율표시제 지정 받은 곳은 담양 1개소에 불과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500여 개소가 신규 지정 신청을 했다. 전남도는 국산김치 사용 인증제 표시제와 연계해 국산김치 활용행사, 자율표시 지정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소비촉진 대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생 봉사 활성화 협약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2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성현 목포해양대총장(왼쪽 세번째),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오른쪽 세번째)과 광주·전남 대학생 농촌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대학-농협 간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지방정치대상 미래개척분야 최우수상

혁신적 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자리매김

이용섭 광주시장의 2021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에서 미래개척분야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지방정치에서 거버넌스에 기반한 자치분권 활동을 강화하고 확산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수여한다. 2일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에선 7개 분야 18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용섭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광주의 대전환-광주형일자리,

AI중심도시 광주, 2045탄소중립도시 광주'를 주제로 미래개척 분야에 응모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들어 그동안 정치적 차별과 소외 등으로 낙후됐던 광주를 경제 중심도시로 체질개선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장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4월 준공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완성차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작·간접 일자리만 1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유치·건설하

는 등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산업융합단지 조성을 이끌고 있다. 국내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는 등 광주형 AI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용섭 시장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광주시장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한 발 앞서 펼치는 혁신적인 정책이 '청년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찾아온 자치분권 시대로의 전환을 기회로 삼아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역사 국내 최초 공기정화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모든 차량과 역사에 국내 최초로 공기정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2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공기정화 시스템은 프리 필터와 헤파 필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프리 필터는 5~30 μm , 헤파 필터는 5 μm 이하 미세 분진을 제거한다. 시스템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인 미세먼지(PM10) 100 $\mu\text{g}/\text{m}^3$ 이하, 초미세먼지(PM2.5) 50 $\mu\text{g}/\text{m}^3$ 이하로 차량 내부 공기를 관리한다. 이종으로 설치된 필터를 통해 1차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2차로 초미세 먼지의 95% 이상을 포집하는 성능을 갖췄으며 차량당 2대가 설치된다. 승강장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자동 제어로 연동된 공기정화 시스템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게 된다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명했다. 최병인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차량설비과장은 "2호선이 개통되면 하루 23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에 있는 차량과 역사의 공기 질을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 | | |
|--|--|
| <p>대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p> <p>혜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p> | <p>내용 MG체크카드 이용자</p> <p>신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p> |
|--|--|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